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1열왕 19,11



호렘산에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가운데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흘려보내던 일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보하’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서 만든 신조어로 특별한 성취나 화려한 경험이 없어도 무탈하고 담담하게 흘러가는 우리네 일상을 재치 있게 담아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비한 기도 체험이 없어도 매일 충실한 기도로 하루를 열고, 꾸준히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수행하며, 작은 묵주 알을 굴리면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초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 우리도 게임 미션을 수행하듯 세상 한가운데서 내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영성 생활의 레벨을 조금씩 올려 가다 보면 자신만의 ‘아보하’를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는 그의 책 <무지의 즐거움>에서 ‘꾸준히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매일 판에 박힌 듯한 일과를 반복합니다. ... 다른 조건을 모두 똑같이 해 두지 않으면 변화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라는 힌트를 놓치지 않는다면, ‘판에 박힌 듯한 일상’ 안에서 거룩함의 단서를 발견하는 선물 같은 순간도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는 말씀이 반가운 여름, ‘아보하’를 외치며 부디 지치지 않고 건강하시길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드높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시기보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 중에서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성심의 인간적이고 신적인 사랑에 관하여

글 | 양성부



프랑스 성 클로드 라 콜롬비에르 성당의 모자이크 프레스코화 중 일부, 1922년 작품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 곧 자아의 중심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과 행동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적 원칙

은 거의 잃어버린 채, 종종 혼란스럽고 분열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을 위한 자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살아 있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방인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마음은 모든 참된 유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 안에서 한 개인의 고유함을 마주하면서도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 주고자 하는 의지가 만나는 신비로운 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인을 만날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향합시다!

살아 계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빛으로 밝혀져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며 성장하고 우리의 의지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맛보며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공경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존재의 핵심이며 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용광로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향합시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진실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가장 깊고

인격적인 사랑의 원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 첫 선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관상하며 그분의 섬세하고 고귀한 정서와, 친절함과 온유함과 참된 인간적 애정의 표지들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신적 사랑의 깊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몸과 마음을 취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인간적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고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관상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황께서는 날마다 현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심을 인식하려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신앙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고 훨씬 더 현실적이며 믿을 만한 존재의 심장 박동을 느껴야 합니다. 곧, 세상의 심장이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물이 샘솟는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도성에 기쁨을 주는 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받기

부활하신 주님의 성심은 우리를 위하여 극심한 고통마저 감내하시며 온전히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그 표지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분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로해 드리려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그분께 봉헌하고자 할 때마다 분명 그 고통이 그분 사랑의 파스카 빛으로 비추어지고 변모되고, 우리가 고통을 감내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심을 알게 되고 내적 위로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로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사랑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더 많은 희생을 하거나 그저 고된

의무를 이행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성심의 표상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게 이끕니다”.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성인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필리 2,5)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샘이 되기

우리가 그리스도께 결합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위한 생수의 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리게네스(로마제국 시대 신학자, 교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영혼은 그 자체로 우물, 샘, 강을 품고 있고 그 속에서부터 이러한 우물, 샘, 강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가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일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흠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귀하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하찮고 사소한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 하더라도 사랑의



2008년 성 목요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난한 지역 교회에서 마약 사용자 보호소 주민들의 발을 씻기는 프란치스코 교황

로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선의에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성심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안에서 사랑의 심장이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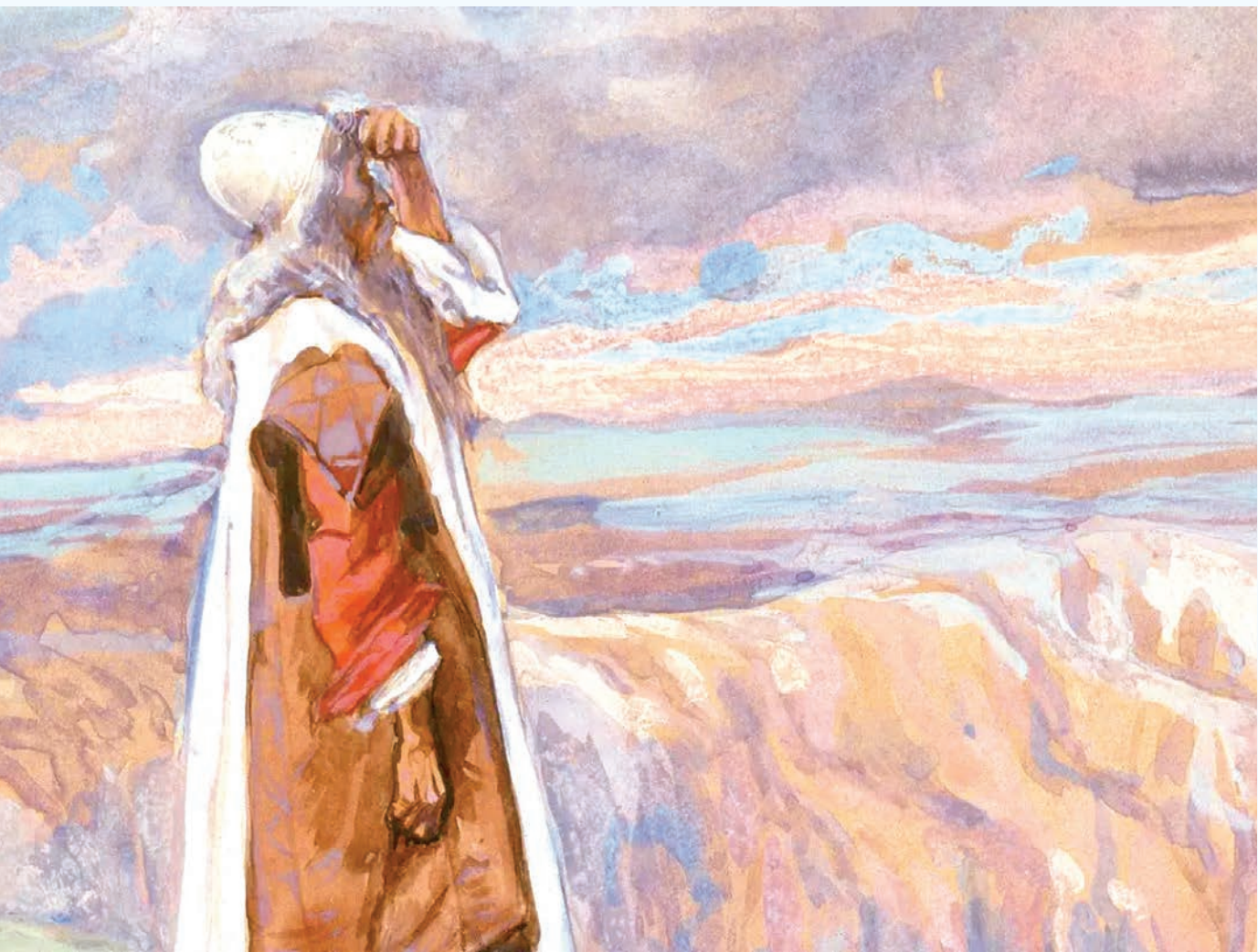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파는 세상에서, 이 비뚤어진 메커니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는 사랑을 위한

자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광적인 추구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세상에 심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서 사랑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2024년 10월 24일 반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중에서

“백성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세” 민수 14,5 참조

글 | 양성부 총평의원 허수진 수진루시아 수녀



제임스 티소, 「멀리서 약속의 땅을 본 모세」, 1900년 작품

모처럼 일이 없는 휴일에 동료 수녀와 둘이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우리는 늘 걷던 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정릉 청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익숙한 길이었는데도 방향이 바뀌어 헛갈렸는지 우리는 어느 순간 형제봉을 향하고 있었다. 길이 점점 험해지더니 급기야 바위가 나타났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기에 봉우리 하나만 넘으면 내려가는 길이 나올 것이란 기대로 계속 걸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결국 세 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했고, 두 발이 아닌 거의 네 발(?)로 암벽 등반(?)을 한 후에야 겨우 내려가는 길을 찾아 돌아올 수 있었다.

나를 길잡이로 믿고 따라온 동료 수녀에게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그는 힘든 내색 없이 바위에서 별별거리는 나를 붙잡아 주고, 봉우리 정상에 올라설 때마다 뷰가 끝내준다며 난처한 내 마음까지 헤아려 주었다. 덕분에 나도 멋쩍게 웃을 수 있었다. 돌아와 다른 수녀들과 우리의 무용담을 한바탕 이야기하고, 무사히 귀원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더 편한 것을 선택하려는 관성

그날 저녁, 하루를 주님 앞에 헤아리는데 몇 가지가 보였다.

우선,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잘못 든 것인지 되짚어 보았는데, 정확히 어느 갈림길이었는지 기억났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보다 더 ‘넓고 편해 보여서’였다. 즉, 목적지를 향해 깨어 살피지 않고 그렇게 늘 걸어오던 관성대로 그냥 ‘편한 것’을 선택해 걸어갔던 것이다. 일상에서의 내 선택 기준이 그대로 드러나 참으로 부끄러웠다.

다음으로 ‘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듯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 길’을 걷는 ‘하느님 백성’이다. 그리고 이 길은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길이 아니라, ‘약속의 땅’ 즉, ‘하느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여정’이며,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교회, 혹은 수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이다. 특별히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시나이산 계약을 통해 어떻게 탄생했으며, 불평과 순명을 거듭하며 하느님 백성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갈대 바다의 기적이나 시나이산의 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
19세기 작품

약 등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도 ‘배신과 불평의 여정’이라고 할 만큼 시시로 하느님께 대고 모세에게 불평한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민수 16,22; 17,10; 20,6 참조)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한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모세의 겸손은 늘 깊은 감동을 준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에도 하느님께 했던 것과 똑같이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민수 14,5; 16,4 참조). 솔직히 모세의 이런 모습은 쉽게 공감되지 않았다. 백성들의 불평이 정당해 보이지도 않았고, 설사 정당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도 광야 길은 처음이라

그런데 그날 저녁 형제봉 사건(?)을 통해 “느보산”(신명 34,1)의 모세 할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고맙고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나 역시 광야 길은 처음이라 때론 너처럼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한 적도 많았거든.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 없는 나를 40년 동안 한결같이 믿고 따라왔어. 그건 나에 대한 믿음이기보다는 나를 통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아. 가끔 불평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그런 거지 정말 하느님이나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보라! 결국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이젠 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거야. 그들은 ‘아직’ 그 땅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미’ 참으로 훌륭한 ‘하

느님 백성’이고 ‘하느님 나라’의 사람들이야! 무엇보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믿고 이 백성을 맡겨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 그래서 그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큰 영광이지! 결국 광야의 여정은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고, 백성들과 함께 걷는 길이었어.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거룩한 이들의 거룩한 여정은 계속된다

총원 수녀들이 모여서 가끔씩 하던 이야기가 새삼 떠올랐다. 매년 공동체의 계획을 준비할 때마다 총원에서는 사도직 현장에서 바쁘고 힘든 수도회 회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년 ‘생명력 있는 공동체’와 ‘사도직 세미나’, 특히 올해는 우리 수도회 수도 생활 숙고와 생활지침서 개정 작업까지, 부족한 총원에 비해 참으로 훌륭한 회원들이 있어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분원 방문을 하면서도 각 사도직과 분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훌륭하게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누고 돌아오곤 한다. 그러면서 왜 교회를 “거룩한 교회”(교회헌장 39항)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개별적인 교회의 구성원이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약하고 부족하며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회헌 3조)으로 모였다면 이 공동체는 ‘거룩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세 명의 작은 분원도, 530여 명의 우리 수도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모세는 이것을 깊이 느꼈기에, 그가 하느님 백성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그냥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생활지침서 20조, 회헌 27조 참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며 모세 할아버지는 마지막 격려를 해 주신다.

“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너희의 여정은 계속된단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희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주실 것이다”(여호 1,9 참조).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



땅속에 기도와 사랑을 바치는 흙의 사람

글 | 이애리 마리베로니카 수녀



잘 익은 고추를 보며 기뻐하는 필자

몇 년 동안 공동체 삶 안에서 더 깊어지고 내면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함께 거주하는 수녀들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해피와 콜리, 논과 밭과 산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과 나무, 풀, 꽃까지 포함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밭을 딛고 사는 땅과 흙, 훑날리는 바람과 공기,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과 태양이 주는 빛도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밤이면 하늘을 횡단하는 달과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도 우리와 연결된 존재로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단테의 말처럼 “별을 움직이는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연천 ‘평화가함께’로 소임 이동을 하고, 초보 농사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갑자기 위암 수술을 받고 한동안 휴양을 해야 했지만 그 이듬해 8월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화두처럼 간직하고 있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통합 생태론의 중심 가치는 최근

흙을 모르던 삶에서 흙과 관계하는 삶으로

수도자로서 순명 서원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바로 소임 이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천에서의 소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 기쁨의 열매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눈동자 안에 나를 간직하시고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필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이 우연적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그 우연적 사건이 필연이 되어 지금의 모습을 띠듯 개인의 삶도, 우리의 수도 여정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사랑이리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의 찬가(The Canticle of Creation)’를 통해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라고 노래하며 흙과 대지를 무생물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내가 지금까지 흙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르면 상호 연결을 무시하고 대상화하게 되며 자연을 우리 인간에게 소출을 주는 자원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술의 힘과 그 산물들을 과도하게 부여하게 되면 한계를 넘어 최대한 ‘쥐어짜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찬미받으소서』 106항 참조). 이러한 일들이 산업화 이후 최근 이백 년 동안 급속하게 이루어진 결과, 현재의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 땅은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 참조)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창세 2,7 참조)”라며 개탄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



유기농 김장 배추를 돌보며



농사는 땅으로 스며드는 사랑

더 깊은 일치 안에, 진짜 사람으로

‘농사’에 ‘사도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농사를 지음으로써 그 모습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육화 신비에 동참하는 복음 선포’를 노동을 통해 온몸으로 살아가기에는 농장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죽어가는 땅을 되살리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흙으로의 회복을 돕는 일은 시대의 징표에 대한 수도자적 응답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낭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노동은 필수적이며 때로는 고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노동은 매일의 수고와 작은 죽음이라는 고통의 상황을 담고 있지만 구원으로 이르는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노동은 내가 진짜 사람, 진정한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의미하는 ‘휴먼(Human)’은 라틴어 ‘휴무스(Humus)’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겸손(Humble)’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휴무스를 ‘흙’으로 이해하지만, 엄밀하게는 식물이 썩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식토’를 말합니다. 부식토는 많은 영양분을 지니고 있어 식물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매일의 노동은 삶의 고통, 즉 분해되고 썩어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낳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농사는 땅으로 스며드는 사랑이며 동시에 어머니인 땅의 사랑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농사는 사랑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사도 농부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땅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흙의 사람’입니다. 사도 농부는 땅을 소중히 여기면서 일을 하고, 땅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시는 소출을 얻어내고, 땅속에 기도와 사랑을 바치는 농사를 짓습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깨어 응답하며 하느님과 비장물(秘藏物)인 가난한 이들과 창조 세계와 더 깊은 일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흙과 함께 일하는 것은 지구를 치유하는 거룩한 혁명이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체험입니다.

가톨릭 상식



성무일도를 평신도도 의무로 바쳐야 하나요?

성무일도(聖務日禱, Officium Divinum)는 ‘일과에 따라 바치는 거룩한 직무로서의 기도’라는 그 명칭 때문에 주로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의무 기도로 여겨집니다.

성무일도가 ‘거룩한 직무 혹은 의무’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전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부터 성무일도를 바칠 특별한 의무로 부름 받은 이들—주교와 사제, 사제직을 지망하는 부제, 수도자는 할 수 있는 한 각 시간경의 제시간을 지키면서 날마다 성무일도 전체를 바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 온 공동체의 의무가 확실하게 또 끊임없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중단 없이 지속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성무일도를 날마다 바쳐야 하는 ‘의무적인 기도’라는 점을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4) 이후 ‘시간의 성화’라는 의미로 ‘시간 전례(Liturgia Horarum)’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자들과 같은 의무자뿐 아니라 평신도 역시 성무일도를 통해 하루의 모든 시간 안에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찬미드리고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권장합니다(전례헌장 100항 참조).

그러므로 평신도들도 일상 안에서 가능한 시간경의 성무일도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목소리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목소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인식해야(성 아우구스티노)” 할 것입니다.

나로 살게 하는 힘, 그 든든한 연대 〈긴긴밤〉

글 | 정연숙 글라라(성모자매회 회원)



글·그림 루리 | 문학동네

2021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누적 판매 50만 부를 넘어선 베스트셀러라니, 어디 한번 읽어나 볼까 하는 마음에 혹은 아이 읽으라고 사서 들춰 보았다가 아이보다 부모가 더 울었다는 소문의 그 책 〈긴긴밤〉. 문학 서적이라기엔 섬세하면서도 수려한 그림이 꽤나 자주 나오고, 그림책이라기엔 글이 참 많다.

2018년 3월 19일 코뿔소 ‘수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에도 전해졌다. 1973년생 수단은 이 책에 등장하는 노든처럼 동물원에서 살다가 아프리카의 한 보호 구역으로 이송된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수컷 북부흰코뿔소였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사실상 북부흰코뿔소의 멸종을 의미한다.

출발점은 ‘45년이라는 세월을 수단은 어떻게 살았을까?’였다고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작가도 처음엔 그저 인간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실행하려는 분노에 찬 코뿔소의 이야기로 구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수단이, 복수를 해도 마땅한 탐욕의 희생자들이 도저히 복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작가. 복수보다 더 강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부디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동시에 아름다운 이 세계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모른 채 어느 날 코끼리 고아원에서 눈을 뜬 노든. 자신의 처음을 알지 못하는 노든에게 첫 가족이 되어준 코끼리들의 보살핌 속에, 보호라는 이름의 인간의 통제 아래 코뿔소가 아닌 ‘안락한 코끼리’로 살아가던 노든은 바깥세상으로 나갈 선택을 한다. ‘혼자서는 코뿔소가 될 수 없었다. 노든이 코끼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코끼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코뿔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코뿔소들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코끼리들의 응원에 힘입어 용감하게 나온 바깥세상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노든. 결국 노든은 아내와 딸, 친구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혼자가 된다. 슬픔과 분노만 남은 노든에게 기적처럼 다시 다가온 이들이 있었으니, 역시 삶의 터전을 잃은 두 마리의 수컷 펭귄과 그들이 애지중지 들고 온 버려진 알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길고 긴 밤과 낮, 그리고 그 무수한 밤과 낮을 함께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긴긴밤〉은 연대에 대한 이야기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란 씨줄 하나에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란 모든 날줄이 촘촘히 엮인, 그러므로 고통스럽지만 그렇기에 또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작가 한강이 말했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동시에 또 이토록 아름다운 곳’임을. 그러므로 노든이 알에서 갓 깨어난 펭귄에게 한 말처럼, 이 세상은 살기보다 죽기가 더 쉽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잔인하지만 과장이 아닌 진실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노든은 말한다.

죽음으로 알을 지켜낸 두 아빠 펭귄, 치쿠와 뽀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함께 공감 나누기 해봅시다

- 나를 나로 살게 하는 존재-내 씨줄을 지탱해 주는 가장 든든한 날줄의 연대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되기’와 ‘나로 살기’, 선택일까? 영화 <로스트 도터>

글 | 이대현 요나(언론학박사,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제목 | 로스트 도터(The Lost Daughter), 2022

미국 · 영국 · 그리스

개봉 | 2022년 7월 14일

장르 및 등급 | 드라마,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 122분

감독 | 매기 질렌할

출연 | 올리비아 콜먼, 다코타 존슨, 제시 버클리, 폴 메스칼 등

진정한 내 삶을 찾기 위해 아이들로부터 도망치다

모성애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일까?

자신의 삶은 포기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인생일까?

우리는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모성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이 모성을 점점 더 고통과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로스트 도터>의 주인공인 중년의 대학교수 레다(올리비아 콜먼 분)도 그랬다. 딸들이 헤어진 남편에게로 가 버린 후 혼자 그리스 해변으로 휴가를 온 그녀가 회상하는 모성애는 마냥 숭고하고 아름답지 않았다. 어린 딸을 두고 늘 도망쳐 버

리겠다고 말하던 자신의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녀는 절대 그런 어머니를 닮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체를 격렬하게 사랑’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헌신적으로 돌본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일부가 되기를 고집하며 자신과 다른 모습에 혐오하고, 육아를 자신에게만 떠맡기는 남편의 이기심에 절망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진정한 내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의 삶을 위해’ 그녀의 어머니는 정작 말로만 했던 ‘도망’을 행동에 옮긴다.

사랑과 고통이 미묘하게 대립되는 모성의 이중성에 대해 레다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면서 해변에서 만난, 어린 딸을 돌보느라 지쳐가는 젊은 니나(다코타 존슨 분)에게 자신을 투영한다. 니나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본다. 그래서 엄마에게만 매달리는 니나의 딸 아이가 미워 아이의 인형을 훔치고, 니나에게는 도망쳐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설득하지만 실패한다. 그 순간 레다는 깨닫는다. 자신의 선택이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일!

‘어머니 되기’와 ‘나로 살기’는 함께 가야 할 길

<로스트 도터>는 이탈리아의 여성 작가 엘레나 페란테의 소설 <나쁜 사랑> 3부작 중 <잃어버린 사랑>이 원작이다.

레다에게 ‘나’의 삶을 선택하게 했다. 그러나 레다는 ‘어머니로서의 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어머니는 인생의 소중한 선물이고, 삶에 대한 존중이며,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전해주는 헌신이기 때문이다.

어린 딸들과 남편을 두고 떠났다가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레다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보다, 아이들이 없을 때 더 쓸모없게 느껴지고 더 절망적이어서”라고 고백했다. 딸들이 어릴 때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레다는 해변에서 오렌지 껍질을 꺾어지지 않게 뱀 모양으로 벗기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어머니 되기’와 ‘나로 살기’는 둘 중 어느 하나를 버리고 취하는 선택이 아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이다. 이는 주님이 바라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미 성경 속에서 만나는 많은 어머니들이 보여주고 있다. 레다 역시 ‘잃어버린 딸’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우리는 세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야 한다.
일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아름다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
세상을 도외시한 채 하느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
눈과 마음을 열어 세상에서 하느님을 보고
세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세상 속에서 희망하고 믿고 일하고 사랑할 때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며 하느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마틴 슐레스케

〈율림 : 삶의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서〉 중에서

“Ang salita mo’y tanglaw sa mga paa ko at
liwanag sa landas ko” Sal 119 : 105



나보따스 칼로오칸 교구청에서 열린 추기경 서임 축하식에 참석한 우리 수도회 수녀들과 예수수도회 수녀들
왼쪽 두 번째부터 최지영 요세핀 수녀, 김민정 루체 수녀, 정명숙 유딧 수녀, 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2024. 12. 17.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 2025~26학년도 입학생 원복 치수를 확인하는 최지영 요세핀 수녀 2025. 3. 26.



산호세 아카데미에서 열린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 졸업식에 산호세 아카데미 교장, 유치원 책임교사와 함께 한 우리 수도회 수녀들 2025. 4. 2.



마켓3 지역에서 개신교 후원자와 함께 가정 방문을 한 정명숙 유딧 수녀 2024. 12. 24.



패존 지방 신학생들과 린창고 급식소를 방문한 김민정 루체 수녀 2025. 3. 11.



나보따스 졸리비에서 열린 2024~25학년도 급식 종료 파티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260여 명의 학생들과 우리 수도회 수녀들이 함께 했다. 2025. 4. 12.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글 | 최지영 요세핀 수녀

‘따하난 니 마리아(Tahanan ni Maria, 마리아의 집)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가정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나보파스에서도 가장 열악한 마켓3과 시초 지역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필리핀의 새 학년은 6월에 시작합니다.

해는 바뀌어도 이곳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안, 화장실도 없는 한두 평 남짓한 판잣집들이 늘어진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은 터라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5세)가 된 스무 명의 아이들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 버렸던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은 많은 도움의 손길과 간절한 바람, 그리고 기도가 모여 작년 7월에 다시 개원했습니다. 3월 현재 필리핀 빈민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스무 명이 우리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첫 가정 방문 후 입학하기로 한 아이들이 엄마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입학 원서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다섯 살이 되어서야 출생 신고를 한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당시는 교사를 새로 채용하기 전이라 부족한 타갈로그어로 질문지를 만들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는 필자
2025. 1. 15.

어 더듬더듬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에는 처음 보는 유치원과 외국인 수녀의 모습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의자 위를 마구 뛰어다닐 정도로 활발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들에게 그저 웃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

하루하루 성장하고 변해 가는 아이들

이제는 그때보다 아주 조금 나아진 타갈로그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변해 갔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접한 것들이 많았던 아이들은 매일 아침 마시는 우유도 낮설어 하고, 가끔은 위축되어 눈치도 봤지만 이제는 자기가 놀고 싶은 놀잇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놀이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환하게 변한 아이들의 표정 안에서 새삼 깨닫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이곳 아이들이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의 울타리 안에서 저마다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일 년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마치고 더욱 의젓해진 모습으로 졸업식(4월 2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무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매년 교육의 첫 단추를 열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 아이들에게 또 어떤 새로운 희망을 열어 줄 수 있을지 우리 수녀들의 고민은 계속 됩니다.

우리의 여정으로 이곳 아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작으나마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필리핀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에 많은 사랑 보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그분께 해 드린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있어 이곳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산호세 아카데미 미사 참례 후
2025. 3. 25.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글 | 김민정 루체 수녀



유치원 사무실에서 바이블 웨어링 중인
자매와 필자 2025. 3. 23.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말씀 선교를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식민
지였던 이들에게 하느님은 익숙한 분입니다. 그래
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심 생활은 크게 자리한 반
면, 성경 말씀은 척박한 곳이 바로 필리핀 교회입니
다. 그런 이곳에 선물처럼 귀한 창세기 말씀 봉사자
세 명이 탄생했습니다. 재작년에 연수를 마친 자매들
이 일 년여의 기다림 끝에 올해 첫 창세기 말씀 봉사
를 시작한 것입니다. 열정 가득한 말씀 봉사자들은 그
룹원을 열세 명이나 모았고, 이제 탈출기 그룹공부도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이들의 열성은 제 발걸
음을 재촉하는 원동력입니다.

저 또한 축복받은 성경 읽기 ‘마르코복음서’로 네 명의 형제자매들과 ‘바이블 웨어
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복음서가 몇 권인지도 모르는
이들의 소박한(?) 삶에 흠칫 놀랄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제부터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기약 없는 ‘필리핀
타임(?)’으로, 답답할 정도로 늦은 메시지 회신으로 제 속은 그을음이 앓을 때도 있

지만 정작 성경을 펴고 앉으면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금세 말씀에 젖어 드
는 이들의 모습에 감탄합니다.

이미 신앙의 기름을 지닌 이들과 말씀을 나누며

얼마 전 ‘바이블 웨어링’을 하던 중 한 자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
으니, “구세주”라고 선뜻 답합니다. 그 자매는 지난달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위층으로 찾으러 올라갔다가 때마침 창밖으로 이웃집에
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급히 식구들에게 알려 화재 위험으로부터 대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성경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느꼈는지 물으니, “언제부
터인지 자연스럽게 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가
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기름이 서서히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미 신앙의 기름을 지닌 이들에게, 하느님 말씀은 그 기름을 태워 빛을 밝히는 성
령의 불입니다. 저는 물동이에 물을 채우듯(요한 2,7 참조), 이들과 성경을 펼쳐 함께
읽었을 뿐인데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일상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하
느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밝혀지는 불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그 불
을 나누어 받는 체험을 합니다.

모임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을 되뇌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선교지에서의 모든 순간들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함
께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사도직 현장에서 저의 지식과 언어는 물
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내어 드릴 때마다 사람들을 배불
리시고, 또 많은 이들을 위하여(마르 14,24 성찬례 참조) 열두 광주리를 남겨 주십니
다. 이제 막 시작된 필리핀 가톨릭성서모임이 한 톨의 겨자씨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는 오늘도 그분께서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기쁘게 나르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
갈 따름입니다. 필리핀 가톨릭성서모임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
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도드
립니다.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으니 축복입니다



글 | 로벨 S. 데 헤수스

저는 성 빈첸시오의 정신을 따라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명을 가진 가톨릭 학교 '무손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학사 과정을 마쳤고, 현재 파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삼륜차 운전을 하며 밤낮으로 애쓴 성실한 분이었지만, 부양할 자녀가 여섯 명이나 되었던 터라 제 어린 시절은 늘 넉넉지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그때의 순수함과 조용한 기쁨의 시간들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늦도록 일하고 한밤중에야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저는 오빠와 함께 차가운 인도 위에 누워 있곤 했습니다.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퇴근한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판데살(필리핀 전통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기다렸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요즘 파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이 이런 저의 과거와 닿아 있음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의 눈 속에서 제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발견합니다. 제 역할은 단순히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년 초,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부모님들의 얼굴에 가득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 그리고 작은 친절함 행동이 만들

어 낼 변화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들과 산호세 아카데미 운영진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영광

수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장난감에 눈을 반짝이거나 처음 접한 교육 프로그램에 낯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간단한 지시를 따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아이들, 존댓말인 '포(po)'와 '오포(Opo)'의 사용법을 모르는 아이들, 화장실 사용법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사랑과 관심을 원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 안에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저를 이끌었던 바로 그 회복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알파벳과 숫자뿐만 아니라 친절과 존중,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게 어울리며 놀고, 선생님을 존중하며,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 큰 특권이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언젠가 배려심 깊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은혜와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희망이며, 저 또한 그들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자유놀이를 하는 필자
2025. 1. 22.



저의 잠재력을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 아르만도 A. 파스쿠알 주니어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파티마대학교(OLFU : Our Lady of Fatima University)’에서 해양운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 아르만도 A. 파스쿠알 주니어(22세)입니다.

따하난 니 마리아 장학생이었던 제 형은 대학교 1학년 때 백혈병 투병을 하면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녀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인 저를 형 대신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장학생이 된 것은 제 인생을 바꿔 놓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장학금은 제 학업 여정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지역 사회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 후원자들의 관대함과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언젠가는 제가 받은 친절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교육은 저에게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제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원해 주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결심했습니다.

먼저 학업을 우수하게 마치겠습니다. 교육이 더 나은 미래의 열쇠라는 것을 되새

Thank you for believing in my potential

Good day, I am Armando A. Pascual Jr. I am 22 yrs old, and I'm 3rd year college taking the course BSMT(Bachelor of Science in Marine Transportation) studying in Olfu(Our Lady of Fatima University), The reason why I got here is because Sister's invite me to join me in the scholarship in place of my brother because he had cancer, which is a blood disease called leukemia, while he was studying in the 1st year of college and at that time I was only in grade 6, that's when I started participating in the Tahanan ni Maria scholarship.

Being a scholarship student has been a life-changing experience for me. It has given me the opportunity to pursue my education without the burden of financial worries. I feel honored and grateful to be chosen, as this scholarship has not only supported my academic journey but also inspired me to work harder and aim higher.

I sincerely thank our Korean sponsors for their generosity and kindness. Your support has provided me with access to quality education, resources, and the motivation to excel. Your efforts are not just helping me but also making a lasting impact on my family and community. Without your help, my dreams of a brighter future would have been much harder to achieve.

Looking ahead, I am committed to making the most of this opportunity. I will continue to study diligently, contribute positively to my school and society, and one day, pay forward the kindness I have received. My goal is to become a successful professional who can support others



마닐라 인근 바다 선상에서 해양 실습 중인 학우들과 함께
2024. 10. 15.



공부방 장학생 모임. 맨 뒷줄 가운데 최지영 요세핀 수녀 오른쪽 옆이 필자 2025. 3. 9.

기며 학문적 성장에 전념하여, 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강한 규율과 책임감을 기르겠습니다.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내심과 끈기, 결단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원을 받았듯,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멘토링, 자원봉사,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해양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글로벌 해양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자 하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얻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노력과 결단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원으로 이러한 결심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며, 저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잠재력을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 need, just as you have supported me.

As I look ahead to the future, I am determined to set clear goals and work hard to achieve them. Education has given me the foundation to dream big, and with the support I have received, I want to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that comes my way.

One of my main resolutions is to complete my studies with excellence. I will remain dedicated to my academic growth, ensuring that I gain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succeed. I understand that education is the key to a better future, and I will not take it for granted.

Another important resolution is to develop a strong sense of discipline and responsibility. Success, does not come easily, and I know that perseverance, patience, and determination are essential. I will continue to work hard, stay motivated, and push myself to overcome any challenges that come my way.

I also aspire to give back to my community. Just as I have been supported through this scholarship, I want to help others in the future. Whether through mentorship, volunteer work, or financial assistance, I hope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lives of others who need guidance and support.

Lastly, I am committed to becoming a successful seafarer.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achieve my dream, from improving my skills to gain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My goal is to build a stable career that allows me to support my family and contribute to the global maritime industry.

With determination, hard work, and the support of those around me, I believe I can turn these resolutions into reality. I am excited about the journey ahead and will strive to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in my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Thank you once again for believing in my potential. I will do my best to make you proud.

Sincerely,
Armando A. Pascual Jr.



선교지 소식 베트남

후에 교구 호영장 공소 어린이들을 위한 설날 선물 나눔 행사 2025. 1. 18.



▶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수녀들

왼쪽에서 세 번째 김미와 마리레나 수녀,
여섯 번째 김희자 마리릿다 수녀,
오른쪽 끝 백미현 글라라 수녀

▶ 선물 나눔 후
어린이들과 함께



설날 행사 동심킨더가든 응우한선 다낭, 2025. 1. 21~22.



▲ 교직원들과 함께 한 수녀들



▲ 한글반 어린이들에게
세배 예절을 가르쳐 주는 수녀들



▲ 한글반 어린이들과 함께한 수녀들



▲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수녀들
백미현 글라라 수녀, 김미와 마리레나 수녀,
김희자 마리릿다 수녀

환경 캠페인 동심킨더가든 응우한선 다낭, 2025. 3. 14.



▲ 장미반 어린이와 교사들이

백미현 글라라 수녀(뒷줄 왼쪽),
김희자 마리릿다 수녀(앞줄 오른쪽)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 공터 주변과 쓰레기 집합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어린이들

한글 단어 맞추기 게임 동심킨더가든 응우한선 다낭, 2025. 4. 9.

▶ 장미반 어린이들에게 퀴즈를 내고 있는
김희자 마리릿다 수녀



▲ 약 3개월간의 한글 수업과
퀴즈 진행을 맡았던 김희자 마리릿다
수녀(뒷줄 중앙)와 선물을 전달하는
백미현 글라라 수녀



▲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는
교사와 어린이들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12그룹 운동장, 2025. 1. 4.



▲ 새벽 묵주기도와 미사를 봉헌했다.



과테말라 창세기 11차 연수

과테말라 안티구아 벨렝 피정의 집, 2025. 1. 17~18.

▲ 연수생(20명), 말씀 봉사자(16명)들과 함께 한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간또 그란데 어린이 여름방학 교실

간또 그란데 (구)수녀원, 2025. 1. 22.

▲ 한달 동안 진행된 여름방학 교실에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가 어린이와 교사들과 함께 했다.

▶ 교리반 어린이들과 송선영 리사 수녀



희년 개막 미사

크리스도 엘 살바도르 성당, 2025. 1. 26.

▲ 첫영성체 어린이, 학부모들과 함께 오른편 왼쪽부터 송선영 리사 수녀, 이순옥 글라리아 수녀,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첫영성체 교리 브라데라스 공소, 2025. 2. 2.

리마 가정 방문 나타니엘 수녀 할아버지댁, 2025. 2. 7.



▲ 페루 출신 수련자 나타니엘 수녀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전 날 임종한 나타니엘 수녀의 할머니를 위한 기도를 했다.

감실 축복식 미사 리마 선교센터, 2025. 2. 11.



▲ 미사 후 리마 봉헌생활자 담당 살라베리 주교, 언어 선생님 베티 자매와 함께 박은경 은경아네스 수녀, 이순옥 글라리아 수녀,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송선영 리사 수녀,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칸가리 마을과 치우와 마을 축제 2025. 3. 1.



▲ 칸가리와 빠깨 신자들과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시노드 모임

간또 그란데의 '예수스 비다 이 빠스 성당', 2025. 3. 9.



▲ 본당 소속 10개 공소 임원진 200여 명과 시노드 모임에 참석했다.

페루 중남부 지역 성지 순례 2025. 3. 11.



▲ 도밍고 성당의 복사단, 청년들과 박은경 은경아네스 수녀

• 선교지 소식 카자흐스탄 •

축복받은 성경 읽기 '탈출기' 마지막 모임 딸티코르간 성당 지하 교리실, 2025. 1. 19.



◀ 본당 사제, 신자들과 함께 한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수도자 서원 갱신 미사 알마티 삼위일체 성당, 2025. 2. 1.

▶ 호세루이스 주교 주례로
교구 수도자 서원 갱신 미사를
봉헌했다.



뚝두르즈베 종교국 개최 행사 2025. 3. 4.



▲ 감사의 날(3월 1일),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우르즈(3월 20일)를 기념한 행사



▲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왼쪽),
오은영 은영테레사 수녀(오른쪽)와
종교국 직원

나우르즈 축제 문화 행사 딸티코르간 중앙광장, 2025. 3. 20.



◀ 본당 올리안 신부, 신자들과
행사에 참석한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알마티 교구 청년 피정 쉼켄트 피정의 집, 2025. 3. 20~24.



▲ 본당 알란 신부, 청년 6명과
함께 한 오은영 은영테레사 수녀



▲ 피정 중 쉼켄트 고대 유적지 탐방



▲ (좌) 알마티 교구 내 8개 지역 청년 42명과 사제, 수도자들
(우) 콘솔라따수녀회 치쁘라 수녀와 오은영 은영테레사 수녀



딸티코르간 가정 방문 가라블락 마을, 2025. 3. 29.



◀ 한국에서 취업 중이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 슬픔 중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 위로하고 건강을
돌보는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탐방·정리 | 성모자매회

여기 가장 큰 고통 중에, 가장 약한 모습을 한 이들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료 사도직과 원목 사도직에 소임하고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들이다.



서울성모병원 1층 성당 입구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수녀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서울성모병원) 1층에 들어서면 원기둥의

일부처럼 보이는 황동색 벽체가 첫눈에 들어옵니다. 그 옆으로 커다란 성모 마리아 상도 보이고, 벽면에 새겨진 성경

말씀도 보입니다.

서울성모병원에 갔을 때 가톨릭 신자라면 한 번쯤 느껴 보았을 반가움과 안도감이 시작되는 곳, 낯설면서도 웬지 모를 익숙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곳-서울성모병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황동색 벽체 뒤로 자리한 성당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미사가 집전되고, 원내 방송을 통해서는 병원 전체에 하루 세 번 삼종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목실까지 가지 않아도 병원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이보리색 수도복 차림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이하 우리 수도회) 수녀들이 언제나 누구든 청하기만 하면 함께 기도를 해 줍니다. 아무도 청하지 않더라도 수녀들은 아픈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듯,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의료/원목 사도직을 통해서 말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의료/원목 사도직의 모태는 우리 수도회가 개원한 성 마리아 의원입니다. 우리 수도회는 1951년 5월 부산 피난 시절 두 명의 수녀가 메리놀

수녀회 수녀들과 함께 메리놀병원에서 약국 보조와 원목으로 일하며 의료/원목 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수도회 본원을 부산에서 서울 흑석동으로 이전한 직후에도 당시 사회적 요청이 가장 큰 분야였던 의료사업을 위해 1955년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흑석동 성 마리아 의원을 개원하여, 본격적인 사도직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성 마리아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가톨릭 의과대학 부속 영원한 도움의 성모병원(1967~1980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화의 일환으로 수도회가 자체 운영하던 병원을 폐원하고, 그 인력을 가톨릭 의과대학 부속 강남성모병원으로 파견하게 되면서 지금의 서울성모병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도회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성모병원에는 영성부 소속의 원목팀, 자원봉사지원팀, 사회사업팀, 호스피스, 가정간호센터 그리고 간호부와 재무팀에서 수녀들이 소임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가난과 질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던 시절 우리나라에는 필수 의료직을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해외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국내외 가톨릭 수도회



병원 별관 1층 원목팀 사무실

의 역할이 컸습니다. 수도공동체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의료 사도직에 파견된 수도자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느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료/원목 사도직도 변하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의료 시장이 변했잖아요. 전문 의료 인력은 많아지고 그만큼 업종에 대한 경쟁도 심화되었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이유로 의료직에 종사할 수도자들이 필요한 시대는 아닌 거죠. 다만 우리 수녀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목입니다. 마음이 더 아픈 시대인 만큼 원목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도 원목 중심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지요. 1980년 강남성모병원 개원 당시 2명으로 시작한 원목팀이 지금은 10명으로 늘었을 정도

로 꾸준히 원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의료/원목 사도직 전반에 대한 간호부원장 박현숙 안나그라시아 수녀의 설명입니다.

10명의 수녀로 구성된 서울성모병원 원목팀은 매일 모든 병동의 입원병실을 방문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가톨릭 신자 명단을 받아보는 일조차 어려워진 일반 병원 원목 활동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특별한 병원이 아니라 오히려 원목 수녀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병원이라고 영성부 원목팀장 임연희 연희수산나 수녀는 말합니다.

“매 순간 기도의 큰 힘을 체험합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옆에 아홉은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간혹 하느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응석과 투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에게 응석 부리고 투정하듯 하느님께 하고 싶은 걸 우리 수녀들에게 하는 거죠. 그 순간 생각합니다. 아, 나를 통해 하느님이 드러나고 계시구나, 내가 수녀이기에 이 일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원목 수녀가 아닌데도 병원 내에서 기도를 청하는 이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처음에는 원목 수녀를 불러 주겠다고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존각을 다투는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아니면 기도해달라는 이의 청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원목 수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힘은 때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의료진들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기도로 마음이 먼저 치유된 환자들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있는 이를 찾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해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는 병원이 서울성모병원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곳까지 오기 어렵습니다. 상급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에 든 병은 발전된 의료 기술이 낮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든 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자신도 주변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만 갑니다. 세계적인 의료 수준에, 경제 발달에 발맞추어 복지 수준도 펴 향상되었다지만 소외된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사회사업팀. 기부와 자선을 통해 모여진 후원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기부금을 통한 사회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 서울성모병원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서류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환자가 당면한 어려움도 서류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서류를 통해 이 환자가 정말 사회적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서울성모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다는 사회사업팀장 남영희 프라우스 수녀가 고충을 털어놓자 가정간호센터 팀장 허영숙 마가렛 수녀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럴 때 발휘되는 것이 연계의 힘 아닐까요? 가정간호센터는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집으로 방문해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적 처치와 돌봄을 합니다. 수술 후 퇴원 환자나 항암 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는 암 환자 등 의료진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의뢰한 환자들에게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죠. 병원에서 의뢰된 경우는 대부분 유료 서비스이지만 본당 연계가

정간호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분을 찾아가 무료로 도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본당을 통해 의뢰된 한 가정에 방문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이때도 사회사업팀과 연계해 타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게 해드렸어요.”

본당과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팀 그리고 가정간호팀과 사회사업팀의 연계, 더 나아가 가톨릭 네트워크,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CMC)과의 연계가 만들어낸, 큰 보람을 느낀 일로 기억한다던 허 마가렛 수녀는 ‘다 쓰러져가던 한 가정을 살려낸 일’이라면서도 이는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모님의 영성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거치며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초기 교육과 월 교육을 통해 양성된 자원봉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호스피스 병동은 6시간씩) 활동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 새로 온 봉사자 중에는 자원

봉사하려고 2년 앞당겨 58세에 퇴직했다는 전직 교사가 있었어요. 자원봉사 지원 자격에 만 60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초고령화 시대인 만큼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만 70세(호스피스 봉사는 만 60세)가 되면 자원봉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꼬박 3시간씩 서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유동적으로 적용하고는 있어요.”

박명희 테레지아 수녀도 오랜 시간 간호부 간호사로 소임하다 퇴직 후 자원봉사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겨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성부 수녀들에게는 정년을 정해두지 않기로 한 덕분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오랜 연륜으로 이론사도직 역량을 가능한 오래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량에 맞는 소임을 하고 있는 다섯 명의 수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저 나를 통해 하느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될 뿐이라고, 그러니 부디 하느님의 일을 모르고 지나가는 일 없이 잘 알아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라고 말입니

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자세를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라고 말하며 다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의 곁으로 바빠 돌아갔습니다.

✍ 전하고 싶은 이야기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현재에 충실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하느님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자신에게 먼저 당부하는 말입니다.

박현숙 안나그라시아 수녀 / 간호부원장

언제든 원목실 문을 두드리세요. 신자, 비신자, 환자, 보호자, 교직원 모두를 환영합니다. 환자 맞춤 일대일 세례 교육과 교직원들을 위한 미사 및 세례 교육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영성부 소속 사제 5명과 함께 상시 대기 중인 원목 당직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연희 연희수산나 수녀 / 영성부 원목팀장



성모자매회원들과 인터뷰 중인 수녀들. 사진 왼쪽부터 남프라우스 수녀, 임 연희수산나 수녀, 박 테레지아 수녀, 김미선 미션젤마 성모자매회 담당수녀와 성모자매회원들, 박 안나그라시아 수녀, 허 마가렛 수녀

자신의 삶과 시간, 기술을 나누는 자원봉사가말로 성모님의 영성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모님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키오스크 사용 등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환자들은 늘어만 가는데, 자원봉사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 충원이 시급합니다.

박명희 테레지아 수녀 / 자원봉사지원팀장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살펴주세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계를 통해 하느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얼마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모인 후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가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허영숙 마가렛 수녀 / 가정간호센터팀장,

남영희 프라우스 수녀 / 사회사업팀장

한마음 한뜻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 안에,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숨어 계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는 살아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각자가 베푸는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2025년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1936~2025)
강론 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억하며 연도와 9일기도를
바치는 우리 수도회 수녀들

수도회 소식

베타니아 10주년 감사 미사 2025. 3. 30.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의 성장과 그 부모들의 정착을 돕는 공동생활가정 베타니아가 개원 10주년을 맞았다(2015년 3월 30일 개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의정부 교구 이기현 베드로 주교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감사 미사를 봉헌하였다.



본원 성주간 전례 2025. 4. 13~20.

주님 수난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희망의 순례자들이여, 변방으로 가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다.

주님 부활 대축일 - 파스카 성야 송재남 알봉소 신부(본원 거주 사제) 주례로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는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서울 대교구 사목국), 강사집 요셉 신부가 공동 집전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2025. 4. 21.

2013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을 주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님 부활 대축일 다음 날 오전(현지 시간) 선종하셨다. 우리 수도회는 연도와 9일기도를 바치며 복음의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화 순례 2025. 4. 21~22.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를 맞아 한국천주교 남녀수도자 장상연합회 행사위원회에서는 '평화를 향한 길 위에 있는 희망의 순례자들'을 주제로 DMZ~민통선(제2땅굴-철원평화전망대-월정리역-(구)노동당사-소이산 정상-(국경선평화학교 1박)-백마고지 전적지-고석정 생태체험)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총 6차에 걸쳐 진행될 이번 평화 순례 중 1차 여정에 우리 수도회 수녀 10명이 함께 하였다.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이 격전을 벌였던 철원 (구)노동당사 앞

Soul FIT+
피정
2025. 4. 26.



본원에서 진행된 4월 Soul FIT+ 피정에 참여한 청년들이 찬양과 함께하는 강의 '프레이즈 톱'과 이나시오식 관상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깊이 바라보고, 기도와 나눔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베무스
파팜!
2025. 5. 9.

새 교황 레오 14세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본원 성당에서 감사 미사를 올렸다. 5월 8일(현지 시각)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인사하며 첫 강복을 주셨다. 우리 수도회 수녀들은 교황 레오 14세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발코니에서 첫 인사를 하고 있는 교황 레오 14세

2025
수도자 큰 잔치
2025. 5. 10~11.

우리 수도회는 성소주일을 맞아 5월 10~11일 양일에 걸쳐 동성중학교와 혜화동 일대에서 열린 '2025 수도자 큰잔치 with WYD'에 참가하여 젊은이들과 함께 부르심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개최를 앞둔 서울대교구와 '축생생활의 해'를 지내는 한국천주교 남녀수도자 장상연합회가 연계한 이번 행사에서 영성별로 연합한 수도회 소개 및 수도회별 성소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수도회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도서출판 성서와함께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젊은이 및 어린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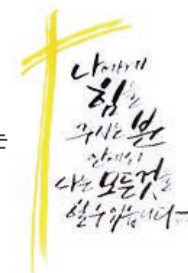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홍보 활동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성화를 재현한 수련소 자매들이 수도회를 홍보하며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체험 부스

▶ 캘리그라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정선아 선아데레사 수녀



성모자매회 소식



◀ 토종 씨앗 파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옥경 마리앙드레 수녀

▶ 성모님 영성으로 기도하는 청년



◀ 흰 양말에서 잘라낸 천으로 꽃을 만드는 오혜정 스바니아 수녀

우리 수도회 재속회원 성모자매회원들의 봉사와 참여



▲ 홍보 부스 앞에서 수녀들과 함께 한 자매회원들

▶ 행사 첫날 김지선 필로메나 회장과 자매회원들이 기도 안내 봉사를 하고 있다.



월봉헌일
2025. 3. 10.



▲ 배준희 준희안나 부총원장 수녀가 새로 부임한 김미선 미션젬마 담당수녀를 소개하고, 김지선 필로메나 회장이 자매회원들을 대표해 환영의 마음을 전하였다.

▶ 정릉성서모임 손혜숙 플로리아나 수녀의 '봉헌하는 마음' 강의를 들었다.



빈소 방문
2025. 3. 30.



▲ 자매회원이자 우리 수도회 이정은 마리노엘 수녀의 모친인故 백금례 말가리다 자매의 빈소를 찾은 자매회원과 담당수녀들이 연도를 바치고, 고별식과 장례미사에 참례했다.

월봉헌일
2025. 4. 14.



▲ 양성부 총평의원 허수진 수진루시아 수녀의 '영성 생활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 자매회원들과 담당수녀의 축일 축하식을 하였다.



▲ 지역별 소개 첫 시간으로 박선규 클로틸다 동 지역장이 4월 월봉헌에 참석한 동지역 자매회원들을 소개하였다.

성지 순례
2025. 5. 12.

자매회원과 담당수녀 포함 총 110명이 충남 서산의 해미성지로 순례를 다녀왔다. 해미성지는 특별한 행적이나 기록은 물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고 묻힌 1천 명이 넘는 우리 신앙 선조들의 체취와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2020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에 교황청이 승인한 우리나라 첫 '국제 성지'로 선포되었다.



▶ 2014년 해미성지를 두 차례나 방문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무명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초기 회원부터 원로 회원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침묵 중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였다.



축성생활의 해
기념 미사
2025. 2. 3.



▲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열린 '축성생활의 해' 기념 미사에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가 참석해 부산지부 자매회원 및 수녀들과 함께 미사 참례 후 기념 촬영을 하였다.

월봉헌일
2025. 2. 24.

▶ 이정희 바실라 자매 외 5명의 자매들이 미사 중 거행된 착복식을 통해 준회원이 되었다. 새로 탄생한 6명의 준회원들에게는 성경이 수여되었다.



월봉헌일
2025. 3. 24.



◀ 서미자 세레나 자매의 탈출기 강의를 들었다.

월봉헌일
2025. 4. 28.

▶ 월봉헌 후 부산지부 임원들이 이경옥 안토니아 담당수녀와 평가회의를 하였다.



| 시애틀 |

- ▶ 준회원식을 하는 4명의 자매들이 '주님께 소망을 드리는 기도'를 바쳤다.



월봉헌일
2025. 2. 16.

월봉헌일
2025. 3. 16.



- ◀ 이형옥 크리스토폴 담당수녀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 강의를 듣고, 친교를 나눈 후 성무일도와 마침기도로 월봉헌을 마무리했다.

| 남가주 |

- ▶ 5명의 자매들이 입회식을 하였다. 새로 입회한 자매들을 축하하며 전배경 엠마 담당수녀와 수녀들이 축가를 부르고, 기념 촬영도 하였다.



월봉헌일
2025. 2. 23.

월봉헌일
2025. 4. 20.



- ◀ 이현미 데레사 자매의 입회로 총 6명의 예비회원이 탄생했다. 수녀들이 준비한 다과로 축하식을 가진 후 자매회원들은 수녀들과 저녁 성무일도를 바쳤다.

| 깐가리 |



월봉헌일
2025. 3. 6.

- ▲ 자매회원들은 박은경 은경아네스 담당수녀와 저녁기도로 소성무일도를 봉헌하였다.

- ▶ 정회원 4명, 예비회원 4명인 자매회원 전원이 월봉헌에 참석한 것을 기념해 요셉 동 경당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월봉헌일
2025. 2. 10.



| 비야 엘 살바도르 |

- ◀ 이순옥 글라리아 담당수녀는 자매회원들에게 규칙서 <회원 양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 ◀ 준회원 6명인 자매회원 전원이 월봉헌에 참석해 이 글라리아 담당수녀와 기념 촬영을 하였다.

마음의 평화를 주신 껌딱지 같은 나의 주님

글 | 이영선 안젤라(수원교구 용인 죽전성당)



수도원 체험 피정을 마치고, 왼쪽이 필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 시간

3월 첫째 주 토요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도원 체험 피정에 다녀왔다.

사실 나는 2년 전에도 이미 성모자매회원의 소개로 수도원 체험에 참여해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근래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데다 나와 가족,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깊이의 신앙을 마주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과 단절되어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 침묵 중에 기도했던 시간은 온전히 나와 주님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내 가족은 물론 세상의 어려운 일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다. 천천히 호흡하며 느끼는 혼자만의 기도, 수녀님들과 함께 하는 낮기도와 미사, 찬양은 내 마음을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하였



홍인영 마리크로스 수녀의 강의



침묵 중에 이루어진 수도원 주변 둘레길 산책



나눔의 시간

다. 그리고 따뜻한 봄볕과 함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역사와 변화를 담은 성스러운 산책길을 걸으며, 그 역사를 걸어가신 수녀님들의 숨결도 느껴 보았다.

주님, 저의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을까? 도대체 나를 바라보시는 하시는 것일까?’

인생이 힘들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홍인영 마리크로스 수녀님의 ‘나에게 사순이란?’ 주제의 강의 중 ‘껌딱지 같은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느님께 대한 원망은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 헤매었는데 당신께서는 껌딱지처럼 늘 내 곁에 계시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는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껌딱지 같은 주님은 그동안 내 곁에 계시며 얼마나 큰 사랑과 희망을, 얼마나 많이 주셨을까!

2025년 새봄, 수도원 체험 피정에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득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수도원 체험 피정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수녀님들과 성모자매회 회원 봉사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한다.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

강 경 숙	권 선 미	김 소 정	김 은 영	김 형 권	박 상 란	백 주 희	심 은 현
강 대 환	권 진	김 수 연	김 은 옥	김 혜 숙	박 선 규	부 정 민	심 재 경
강 미 옥	권 혜 란	김 숙	김 은 희	김 혜 원	박 선 영	서 명 동	안 대 인
강 민 경	권 화 집	김 숙 연	김 인 배	김 호 종	박 성 점	서 복 순	안 선 영
강 상 옥	김 규 숙	김 숙 희	김 인 순	김 홍 윤	박 소 영	서 애 선	안 천 일
강 설 순	김 금 련	김 순 례	김 정 미	김 홍 주	박 양 순	서 연 희	양 경 철
강 영 옥	김 금 주	김 순 희	김 정 선	김 화 용	박 영 선	서 예 진	양 규 진
견 복 순	김 기 문	김 승 현	김 정 순	김 효 선	박 영 자	서 은 정	양 성 후
고 경 옥	김 기 복	김 시 연	김 정 옥	김 희 숙	박 영 철	서 주 혜	양 영 은
고 문 옥	김 길 여	김 안 선	김 정 자	김 희 순	박 용 숙	서 혜 원	엄 경 용
고 순 례	김 도 현	김 연 숙	김 정 현	김 희 영	박 인 철	선 군 자	엄 순 덕
고 순 희	김 동 순	김 영 경	김 종 룰	나 승 경	박 재 숙	성 경 숙	엄 정 미
고 예 리	김 말 순	김 영 숙	김 종 석	남 기 란	박 정 숙	성 낙 훈	엄 해 옥
고 유 라	김 명 희	김 영 순	김 종 옥	남 윤 건	박 정 자	손 미 영	여 효 정
고 현 순	김 문 금	김 영 옥	김 종 인	남 일 현	박 주 연	손 병 윤	오 두 현
고 희 선	김 미 경	김 영 자	김 지 희	내 선 경	박 준 희	손 상 희	오 수 정
공 석 초	김 미 련	김 영 찬	김 진 원	노 동 옥	박 지 연	손 주 영	오 승 목
곽 숙 자	김 미 원	김 영 희	김 진 한	노 시 옥	박 진 휘	송 미 경	오 연 주
곽 신 영	김 미 희	김 옥 순	김 차 선	류 상 조	박 참 슬	송 영 래	오 은 미
곽 옥 자	김 범 수	김 용 각	김 춘 자	류 원 백	박 현 숙	송 정 자	오 은 환
곽 태 호	김 병 숙	김 용 규	김 춘 희	문 복 자	박 혜 경	송 주 라	오 창 선
구 경 모	김 분 자	김 용 진	김 충 희	문 태 성	박 혜 원	송 한 준	오 현 정
구 영 규	김 상 희	김 원 주	김 태 권	민 병 지	반 경 자	신 상 희	원 미 자
구 진 희	김 석 용	김 유 경	김 태 호	민 영 석	방 옥 순	신 성 옥	원 정 원
구 현 숙	김 석 준	김 유 미	김 평 수	민 옥 기	배 순 원	신 숙	유 금 순
권 귀 옥	김 선	김 윤 순	김 현 동	박 기 분	배 차 남	신 연 주	유 미 연
권 내 영	김 선 희	김 윤 자	김 현 미	박 노 형	배 향 심	신 은 경	유 병 문
권 도 연	김 소 각	김 은 순	김 현 숙	박 명 옥	백 금 례	신 정택	유 병 주
권 분 연	김 소 옥	김 은 실	김 현 주	박 문 규	백 인 자	신 혜 영	유 선 미

유 설 애	이 기 정	이 연 심	이 현 재	장 년 수	정 윤 희	주 미 희	최 윤 혜
유 성 분	이 대 성	이 영 미	이 혁 연	장 복 념	정 은 숙	주 비 호	최 은 경
유 은 이	이 덕 아	이 영 빈	이 현 숙	장 원 실	정의 정	주 재 로	최 일 혜
유 정 선	이 덕 원	이 영 숙	이 현 정	장은 유	정 인 경	주 하 나	최 정 희
유 정 현	이 명 분	이 영 순	이 현 희	장 재 연	정 재 순	진 기 순	최 제 원
유 지 영	이 문 희	이 영 주	이 혜 자	장 재 원	정 정 순	진 영 임	최 지 현
유 진 희	이 미 경	이 영 환	이 혜 진	장 희 윤	정 주 혜	차 경 자	최 진 옥
유 찬 영	이 미 나	이 용 순	이 효 중	장 희 정	정 춘 자	차 길 자	최 진 희
유 태 안	이 미 령	이 용 자	이 희 병	전 세 현	정 태 아	차 윤 수	최 철 승
유 하 경	이 미 선	이 은 경	이 희 순	전 영 란	정 향 란	차 윤 지	최 해 인
유 희 정	이 미 애	이 은 정	이 희 정	전 정 민	조 경 배	차 재 룡	최 혜 식
육 희 수	이 민 희	이 은 하	임 경 자	전 종 성	조 경 비	차 혜 경	최 흥 원
윤 경 임	이 상 분	이 은 흥	임 명 숙	전 주 리	조 경 애	차 효 경	최 효 선
윤 대 인	이 상 일	이 재 숙	임 명 주	전 주 윤	조 경 혜	채 경 화	표 순 분
윤 명 자	이 석 순	이 재 춘	임 미 숙	전 주 희	조 규 하	채 성 희	하 광 희
윤 미 숙	이 선 근	이 정 석	임 미 아	전 춘 실	조 금 옥	채 윤 정	하 동 기
윤 선 미	이 선 형	이 정 연	임 미 정	정 광 영	조 명 희	채 현	하 애 란
윤 시 림	이 선 화	이 정 현	임 민 아	정 남 숙	조 성 희	최 경 옥	한 경 미
윤 청 민	이 선 희	이 정 효	임 상 무	정 대 진	조 아 미	최 금 란	한 구 병
윤 혜 련	이 섬 주	이 정 희	임 석 수	정 미 다	조 영 광	최 미 수	한 만 애
윤 혜 정	이 성 우	이 제 식	임 순 영	정 미 숙	조 영 이	최 복 희	한 명 숙
윤 홍 자	이 성 은	이 종 용	임 승 옥	정 민 경	조 옥 현	최 봉 자	한 소 춘
윤 희 정	이 소 연	이 종 원	임 영 규	정 성 희	조 은 경	최 술	한 승 현
이 경 진	이 수 영	이 중 길	임 영 옥	정 수 훈	조 인 숙	최 수 미	한 옥 자
이 경 희	이 수 진	이 지 영	임 영 희	정 애 경	조 정 순	최 승 자	한 인 숙
이 관 애	이 순 영	이 지 희	임 정 숙	정 연 숙	조 현 숙	최 연 옥	한 재 범
이 광 숙	이 승 분	이 진 태	임 정 화	정 연 택	조 현 주	최 영 림	한 정 열
이 그 림	이 승 포	이 창 현	임 태 선	정 영 진	조 혜 옥	최 영 주	한 지 연
이 금 순	이 신 자	이 춘 화	임 화 용	정 옥 순	조 휴 동	최 윤 숙	한 지 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설립의 참 뜻을 펼치십시오.”
- 우리 수도회 설립자 목요안 신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상수구리 모원을 마음에 그려 봅니다.
우리 수도회의 설립지인 평양 상수구리 모원,
그리워도 다시 갈 수 없음이 가슴에 맺히는 그곳,
육로로는 갈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 그곳을 향할 수는 있음을 알기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10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와 현재의 파견지를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로 방문하고
감사와 찬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는 6월 27일, 수도회 93주년 기념일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상수구리 모원을 시작으로 관후리 본당 등 총 11개의 파견지를 둘러
다시 모원으로 돌아오는 총 366km의 순례 여정!
설립 94주년 기념일인 2026년 6월 27일까지 일 년 동안 순례할 곳은
상수구리 모원과 평양에서 파견되었던 사도직 현장입니다.

지금은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수도공동체의 열심한 기도로 언젠가는 다시
수도회 탄생의 못자리인 모원에 가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를 시작합니다.

설립 100주년인 2032년 6월 27일까지 성모님과 함께 나아 갑시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는 묵주기도를 바치며 걷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며(5단=1km) 우리 수도회 파견
지를 기도 안에서 순례하는 8년의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순례지와 기도 방법은 소책자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파견지에 따라 교구별로 1년에
1권씩 발행됩니다. 2025년 평양교구에서 시작하는 순례 기도 여정에 함께하실 분은 영원
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로 연락 주세요. 소책자와 함께 묵주를 보내 드립니다.
T. 02-2171-1500, 1501

한 진 규	등나무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한 진 선	로이드선급노조	서울대교구 강일동성당 성서모임
한 평 섭	리치로지스틱스이근	수원교구 범계성당 21구역
한 평 애	마을과아이들	수원교구 범계성당 빈첸시오회
허 남	문우당서점	수원교구 범계성당 자비의모후
허 정 연	문치과병원	부산교구 남천주교좌성당 사회사목부
허토마스	미소회(김나현)	부산교구 남천주교좌성당
현 정 일	본도시락	부산교구 두왕성베드로성당
현 진 호	선사모	부산교구 범서성당
홍 도 경	세리운운성업	부산교구 복산성당
홍 문 숙	수지 고르다	부산교구 삼산성당
홍 보 근	시원유통(이태원)	부산교구 서대신성당
홍 은 정	유일화사	부산교구 성바오로성당
홍 정 희	제이엔지쥬이엘	부산교구 야음성당
홍 진 숙	주영화학	부산교구 월평성당
황 경 숙	(주)미창	부산교구 천곡성당
황 규 택	(주)유나이티드	부산교구 청학성당
황 승 옥	(주)이정연아나	부산교구 안락성당 빈첸시오회
황 애 현	(주)인동FN	부산교구 우정성당 빈첸시오회
황 우 순	(주)지후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빈첸시오회
황 윤 서	(주)한양정밀	의정부교구 백석동성당 빈첸시오회
황 준 석	(주)홍진경	춘천교구 임당동 빈첸시오회
황 지 현	청학 119 안전센터	성모자매회
서지현, 윤지원	항만소방서 구조대	가톨릭성서모임 전국대표
이재환, 고은실	ABC동호회	가톨릭성서모임 서울 1지역
최용자, 전택근	해사고등학교	가톨릭성서모임 서울 6지역
황선자, 서선자	CANNONAESU	가톨릭성서모임 서울 7지역
구덕신험	IMAGNESYUNJA	가톨릭성서모임 서울 8지역
국립한국해양대학교 LINC 3.0 사업단	천주교 대구대교구	
나보따스장학회	천주교 원주교구 복음화사목국	
대방수산(주)	서울대교구 압구정성당	이외 다수의 익명 후원자

국 내

영원한도움의성모의집 해돋이공부방

4903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3길 412 (청학동)
T. 051-416-1361

- 김재숙 빅토리아 수녀
M. 010-2044-0243

울주군나자렛공동체

4498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화창7길 4-13
(청량읍)

T. 052-257-0243

- 오다운 까밀라 수녀
M. 010-2721-1932

H.O.M in 수지

168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63번길 10
(동천동)

- 오현주 벨베뚜아 수녀
M. 010-9240-4627

H.O.M in 속초

24904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길 87 (도문동)
T. 033-633-0243

- 김재근 아만다 수녀
M. 010-9711-1530

영원한도움 평화센터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51 (혜화동)

- 이선중 로마나 수녀
M. 010-8701-0369

해 외



베트남 VIETNAM

호치민

HO CHI MINH

174/35 Tam Châu, Tâ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VIETNAM

- Sr. Mariann Kim, SOLPH(김미라 마리앤 수녀)
M. +84 76 907 4487
E. rose-mira@hanmail.net
- Sr. Cyrilo Kim, SOLPH(김재숙 시릴로 수녀)
M. +84 76 861 0247
E. skgod299@hanmail.net

다낭

DA NANG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TP Đà
Nẵng, 550000 VIETNAM

※ 2025. 7. 1.부로 변경됩니다.

- Sr. Maririta Kim, SOLPH(김희자 마리릿다 수녀)
M. +84 90 378 6101
E. kimheeja1214@gmail.com
- Sr. Clara Back, SOLPH(백미현 글라라 수녀)
M. +84 78 949 1860
E. cl583@hanmail.net



카자흐스탄 KAZAKHSTAN

탈티코르간

TALDYKORGAN

Kat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T. +7 7282 245 002

- Sr. EunyoungTheresa Oh, SOLPH
(오은영 은영테레사 수녀)

발행일 2025년 6월 1일
발행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발행처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15라길 2-18
전화 (02) 2171-1611
메일 solph70@hanmail.net
홈페이지 https://www.solph.or.kr
인쇄처 세가출판사
비매품

03 권두언 |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마음을 드높이

- 06 교회와 함께 |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 10 말씀과 함께 | 백성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세
- 14 묵상과 나눔 | 땅속에 기도와 사랑을 바치는 흙의 사람
- 17 가톨릭 상식 | 성무일도
- 18 책과 함께 | <긴긴밤>
- 20 문화 속으로 | 영화 <로스트 도터>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4 선교 화보 | 필리핀
- 26 선교 이야기 |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 30 선교 체험 |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으니 축복입니다
저의 잠재력을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6 선교지 소식 | 베트남 · 페루 · 카자흐스탄
- 42 사도직 이야기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한마음 한뜻

- 50 수도회 소식
- 55 성모자매회 소식
- 60 수도원 체험 | 마음의 평화를 주신 껌딱지 같은 나의 주님
- 62 후원자 명단
- 65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 66 국내외 선교지

M. +7 775 960 2731
E. eyt633@hanmail.net
▪ Sr. Salesia Han, SOLPH(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M. +7 702 196 1770
E. hansalesia@daum.net
▪ Sr. Faustina Kang, SOLPH
(강정숙 파우스티나 수녀)
M. +7 775 694 2019
E. Srfaustina@hanmail.net

 페루 PERU
간가리
CANGARI, HUANTA-AYACUCHO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 cafe.daum.net/solph-peru
E. cangariperu@hotmail.com
▪ Hna. EunkyungAgnes, Park
(박은경 은경아녜스 수녀)
M. +51 932 449 968
▪ Hna. Marie Hucco Kim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M. +51 958 733 136

비아 엘 살바도르
VILLA EL SALVADOR, LIMA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T. +51 1 292 2327
H. cafe.daum.net/solph-peru
E. villaperu@hotmail.com
▪ Hna. Clarisa Lee(이순옥 글라리사 수녀)
M. +51 937 411 504

- Hna. Lisa Song(송선영 리사 수녀)
M. +51 958 736 605

리마 선교센터
CANTO GRANDE, LIMA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T. +51 1 359 5855
▪ Hna. Speranza shin(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M. +51 920 753 030
E. smsprz@hanmail.net
▪ Hna. Immanuel Park(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M. +51 986 501 518
E. manuel592@hanmail.net

 필리핀 PHILIPPINES
나보따스
NAVOTAS

San Lorenzo Ruiz Parish(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T. +63 2 8652 7714
H. cafe.daum.net/solphphilppin
▪ Sr. Gabriela, SOLPH(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M. +63 969 174 6992
E. gabi59@hanmail.net
▪ Sr. Judith Joung, SOLPH(정명숙 유딧 수녀)
M. +63 939 332 4146
E. ju395@hanmail.net
▪ Sr. Luce Kim, SOLPH(김민정 루체 수녀)
M. +63 966 271 6663
E. sisterluce@hanmait.net
▪ Sr. Josephine Choi, SOLPH(최지영 요세핀 수녀)
M. +63 928 421 0722
E. josephine.657@daum.net

영원한 도움

조향순 소피아, 「토끼」, 일본 홋카이도, 2010



후원문의

국 내

02706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정릉동)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T. 02-2171-1657

한진선 요셉데레사 수녀
M. 010-2082-6035
E. srijthan@hanmail.net

-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S.A.
T. +1 714 521 1345

Sr. Emma Jeon, SOLPH
(전배경 엠마 수녀)
M. +1 714 383 3585
E. emma2171@hanmail.net

- 미국에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은 미주지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후원금 송금

국내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038659-00305
국민은행 036137-04-005886
신한은행 100-027-67786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해외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910004-74004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신한은행 140-006-01075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2-18, Solsaem-ro, 15ra-gil, Seongbukgu Seoul 02706, Rep. of Korea
T. +82 2 2171 1500 | F. +82 2 2171 1629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